

주 예수가 주시는 평화

The Peace the Lord Jesus Gives Us

요한복음 14:25-27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3월 4일 설교

²⁵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²⁶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²⁷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싸우는 세상

요즘 공화당 후보 경선이 한창입니다. 후보는 넷이지만 람니하고 싘토롬 이 둘이 주 경쟁자인데 말이 경쟁이지 그냥 싸움판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홍보가 허용되기 때문에 진흙탕 싸움이 돼 가지고 람니도 싘토롬도 거의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 뉴저지 주지사를 뽑을 때 서로 비방을 하도 많이 해 가지고 지금도 크리스티 주지사가 텔레비전에 나오면 그 때 보던 멍청한 얼굴이 먼저 떠오릅니다. 지금 람니랑 싘토롬도 서로 비방을 하고 오바마까지 걸고넘어집니다. 구경 가운데 최고가 싸움 구경이라 하지 않습니까? 나하고 상관만 없다면 강 건너 불구경처럼 재미있겠는데 지금 이 싸움은 대통령을 뽑자고 하는 싸움입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가운데 하나가 우리 지도자가 될 거라 생각하니 그저 갑갑합니다.

의료개혁 문제도 시끄럽습니다. 전에는 낙태 비용을 의료보험에서 내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싸우더니 이제는 피임을 하는 비용을 보험에 포함시키자 말자 싸움을 합니다. 여자 법대생 하나가 텔레비전에 나와 그러니까. 임신을 하면 낙태 비용이 수천 달러가 드는데 큰 돈이다.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 피임을 하는데 그 돈도 한 해 천 불이나 되니 피임 비용도 보험에서 내 줘야 된다. 그 말을 듣고 보수 방송인인 러쉬 림보가 쏘아붙였습니다. 너 섹스하는 비용을 왜 남더러 내라 하느냐? 뭘 어떻게 하기에 한 해에 천 불이나 드느냐 하면서 그 여자를 창녀라 불렀다가 나중에 사과도 하고 법석을 떨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오하이오의 한 고등학생이 자기를 괴롭히던 아이들에게 총을 쏘아 세 명이 죽었습니다. 정말 끝도 없습니다. 그 아이들 추도식에 참석한 아이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천사 같은데 추도식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면 또 전처럼 하겠지요. 싸우기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따돌리기도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정말 큰 범죄지요. 싸우는 것도 괴롭히는 것도 따돌리는 것도 다 잘못인데 이게 다 싸우는 방식입니다.

평화를 기다림

이 미국 땅 곳곳에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데 별로 새로운 건 없습니다. 방법만 조금 달라졌지 다투고 죽이는 건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옛날에는 부족 싸움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웃한 마을끼리 사이 좋게 지내면 좋았겠지만 먹을 거나 살 땅이 모자라면 안 싸우기가 어려웠겠지요. 부족 싸움이 커져서 민족 싸움, 나라 싸움이 되었을 건데 더 넓은 나라를 갖고 싶은 지도자들의 야망도 한 몫을 했을 겁니다. 종교 때문에 싸움을 한 일도 많은데 이 점은 예수 믿는 우리가 참 부끄럽습니다.

인류 역사가 이렇게 싸움으로 물들어 있다 보니 생각을 좀 한다는 사람 가운데 이 싸움을 영원히 그칠 방법이 없을까 연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독일의 철학자 칸트입니다. 국제법과 규칙을 강화시키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 다시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믿고 <영구평화론>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국회에서 아니면 대학 강의실에서 부르짖는 사람이 많습디만 이런 환상이 언제 깨지는 줄 혹 아십니까? 퇴근하면 깨지지요. 퇴근하고 집에 가 보면 아이들은 서로 싸우지요, 부인은 돈 가지고 잔소리하지요, 세계평화는 놔두고 집구석부터 안 싸우면 좋겠다 싶어집니다. 칸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 진리를 깨칠 기회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싸움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부릅니다. 싸우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평화를 기다립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나도 얼른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기를 바라지요. 싸우는 것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무기장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싸워도 나는 그 싸움에 안 휘말리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싫어하는데도 안 없어지는 게 또 싸움입니다.

싸움의 출발점

그런데 나라와 나라, 개인과 개인 사이 말고도 평화를 기다리는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우리 마음이지요. 이젠 바깥 세상에 있는 평화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평화 대신 평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영어로는 다 같습니다.

마음은 어떤 때 평화를 느끼니까? 평화니까 싸움이 없어야 되겠지요? 무슨 싸움입니까? 마음이 하는 싸움, 마음이 느끼는 평화지만 바깥 세계와 이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과 바깥세상 사이의 싸움입니다. 내 마음이 바라는 바가 있는데 그게 바깥세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평화지요. 회사가 안 망하고 잘 돌아가는 것,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내 몸 안 아프고 일 잘 하는 것, 이런 게 그대로 안 되면 평화가 깨집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바라는 것하고 바깥세상의 현실이 맞으면 조용하게 평화를 누리고 안 맞으면 내 속에서 싸움이 됩니다.

마음과 바깥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내 마음이 느끼는 이 싸움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식구끼리 왜 싸웁니까? 남편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내는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둘 다는 못 하지요. 그래서 싸웁니다. 이웃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집 나무가 우리 집으로 쓰러졌는데 나도 손해 보기 싫고 너도 손해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싸워 이기면 손해를 안 보니까 마음에 평화가 오겠지요? 그렇지만 이웃하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 반쪽짜리 평안이 됩니다. 너도 나도 대통령을 하고 싶은데 자리는 하나뿐이라 싸워야 됩니다. 나만 잘났기 때문에 친구를 따돌립니다. 나도 인정받고 싶은데 따돌리니 화가 나고 총도 쏩니다.

결국 크든 작든 싸움은 다 사람 마음에서 나옵니다. 국제법을 고쳐 분쟁을 줄일 수 있겠지요. 법을 잘 만들어 사회정의를 구현하면 싸움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지만 법과 제도를 아무리 바로잡고 고쳐도 내 마음에 나만 챙기는 이 마음이 모든 사람 마음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 가정도 직장도 세상도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 마음도 참 평화를 맞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화해

나만 챙기는 마음, 욕심, 이걸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인간 세상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죄는 모든 싸움의 주범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평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라는 것이 본디 하나였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평화, 참 평안을 얻으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먼저 평화로운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모든 문제가 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등진 그게 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이거 해결 못 하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첫 단계는 사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화를 얻고 싶지만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롬 5:10).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일 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어 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없애 주시고 죄가 가로막고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금 친구 사이, 사랑하는 사이, 평화로운 사이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먼저 해 주셨으니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어 평화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편지를 쓸 때도 맨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바란다 하지 않았습니까? 신약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여호와와 그 얼굴로 내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 6:24-25).

아론과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직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직분입니다. 약속대로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롬 5:1). 약속대로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다투지 않고 평화를 누립니다.

이웃과 화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좋아지면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나와 이웃 사이가 좋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웃하고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건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나와 이웃을 갈라놓고 있는 것도 결국 죄의 벽 아니겠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 벽도 사라집니다.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에 따르면 사람은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일단 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심리지요?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반갑기 전에 겁부터 납니다.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 때문인데 그런 불안한 마음에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볼 때도 겁부터 나는 겁니다. 학자들은 죄라는 말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실존의 불안감이 있어 서로를 적으로 보게 만든다 합니다. 실존적인 불안이든 뭐든 그게 바로 나와 이웃 사이를 갈라놓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도 깨뜨리지 않는 유리벽이지요.

이 벽, 마음에 있는 죄의 벽, 너와 나를 원수로 만들어 갈라놓는 이 죄의 벽이 하나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허물어질 때, 이웃과 하나가 됩니다. 옛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런 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교만에 빠져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그런 유대인이 예뻐했습니까?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이가 되었는데 이 원수사이가 주 예수의 은혜로 친구사이로 바뀌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엡 2:16).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다시 말해 사이 좋게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과 사이 좋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이웃과 사이가 좋아지는데 이웃과 사이가 좋아져야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이웃을 사랑 안 한다면 거짓말이 되겠지요?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런데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고 이웃과 사이가 좋아지는 이 평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이웃을 하나로 엮어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화평은 성령이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롬 5:5).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원수 되었던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 생명의 빛이신 주 예수께서 죽음의 어둠 가운데 있던 나에게 다가오신 그 사랑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주신 성령께서 이번에는 나와 이웃 사이에 또 평화를 주십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엡 2:18). 하나님 앞으로는 혼자 못 갑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누가 같이 가야 됩니까? 부부끼리 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를 데리고 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수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유대인은 이방인 손을 잡고, 이방인은 유대인 손을 잡고 둘이 함께 가야 됩니다.

같이 손을 잡으면 더 이상 원수가 아니지요. 이웃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는데 이 일을 성령께서 가능하게 해 주십니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내 안에도 계시는 성령이 내 원수였던 저 사람 안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한 성령이 나와 원수를 나와 이웃으로 엮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실 일

오늘 본문에 보니 이 평화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끼친다는 말은 남겨둔다는 말입니다. 떠나면서 놔두고 간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겁니다.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하늘로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남겨두고 가십니다. 평화를 남겨두고 가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셨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원수 사이를 이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떠나시면서 이 평화는 놔두고 간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 뭐라 하셨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께서 가시면 성령이 오실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실 건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서로 원수였던 우리가 서로 이웃이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가시면 제자들은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고 이웃하고도 다시금 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영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일깨워주시고 주 예수의 은혜를 수시로 깨닫게 하셔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서로 사랑하며 살게, 다시 말해 주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바쳐 우리 가운데 이룩해 놓으신 그 평화를 계속 누리며 즐기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이 이루어진 줄 알고 믿습니다. 이천 년 전에 오신 성령은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주 예수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룩되고 나와 다른 사람도 그 평화로 이웃이 되면, 이제 그 평화가 한 곳에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겠습니까? 우리 마음이지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와야 됩니다. 마음에서 확인이 안 되면 진짜 평화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평화는 결국 마음에서 느끼는 겁니다. 뭐가 평화지요? 둘이 있는데 안 싸워야 평화입니다. 평화가 없을 때 내 마음에서 뭐가 싸웠습니까? 내 자아하고 바깥세상이 싸웠습니다. 이 둘이 일치하면 싸움이 그칩니다.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면 싸움은 끝나고 마음에는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세상 살면서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겠습니까? 욕심은 끝이 없는데 세상은 내 욕심대로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 이런 평화는 얻기도 힘들지만 겨우 얻었다 해도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잠시 즐기는 그 동안에도 그 평화를 잃어버릴까 걱정이 되어 제대로 못 즐기는 게 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게다가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껍데기의 평안일 뿐입니다. 실존적 불안이 있다 했습니다. 혹 바깥세상이 백 퍼센트 내 욕심대로 돌아가 만사형통 해도 욕심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인 줄 다 압니다. 실존적 불안이니 뭐니 말을 돌리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사람은 다 속에 있는 죄를 느끼고 있습니다. 별 받을 걸 생각하니 불안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내 욕심하고 잘 맞아 들어가 평화롭지만 마지막 심판 날이 되면 즐기고 싶은 내 욕심하고 정반대가 되어 내가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 빠질 줄 알기 때문에 진짜 평안이 없습니다.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새 자아가 생겼습니다.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바깥 상황과 무관하게 평화를 누립니다. 왜요?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바깥 상황이 내 옛 자아가 바라는 대로는 안 될지 모르지만 내 새 생명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갈등이 없지요. 평화가 옵니다. 이 평화는 한 번 오면 영원합니다. 왜요? 세상이 뒤집어지든 말든, 갑자기 돈이 생기든 아니면 누가 내 돈을 뺏아가든,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살든 아니면 아파 자리에 눕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확신할 수 있으니까요.

감사로 기도하라

그럼 예수를 믿는 내 마음이 왜 이리 불안합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 줄 믿는데, 성령께서 한 번 오시면 영원히 우리를 안 떠나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평화가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꼭 하나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귀한테 지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예수 믿고 누리는 기쁨, 감사, 평화, 이걸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주 예수의 평화를 가득 심어 주시는데 마귀가 그걸 못 느끼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죄책감 가운데 옛 자아를 되살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도 불신자처럼 바깥 일로 마음이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기쁘거나 슬프고 일 되 가는 데 따라 신도 나고 화도 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도지요, 기도!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6-7). 염려는 평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 구할 것, 다시 말해 바깥세상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걸 하나님께 아뢰되, 감사함으로 하라 하였습니다. 왜요? 내 생각보다 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는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곧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화입니다. 상황을 초월했으니 당연하지요. 그러니 이해하려고 머리 굴리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걸 기도로 다 하나님께 쏟아 부으면 세상이 뒤집어지든 아니면 내 속이 뒤집어지든 내 안과 밖이 같아지고 마음에는 평화가

웁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싸우고, 너도 나도 나서서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얻으려고 싸우고, 곳곳에서 미움으로 시기로 다툼으로 싸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싸움도 줄이고 또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싸움을 줄이고 막으러 나가는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든든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 풀리면 왔다가 안 되면 가버리는 세상 평화가 아닙니다. 남들이 제 싸구려 평화를 지키려고 나를 공격해 와도, 그래서 내가 당해도, 그걸 뛰어넘는 평화가 내 안에 있는 줄 알고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는 말하자면 찰랑거리는 수면을 지나 저 아래로 내려가는 일입니다. 바다 저 아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든든한 평화가 언제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 파도치는 수면처럼 세상 일 가지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어느 경우든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그 어떤 폭풍우도 움직일 수 없는 든든한 평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걸 믿음 가운데 확신하고 날마다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권수경 목사)